**9월 오디션 대본**

**여자**

**10대 후반 (착한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)**

고양인 사라지고.. 리아도 사라지고.. (호) 마지막 한 개.. (호) 안 돼 안 돼!

이건 리아를 위해 남겨둬야지! (호) 진짜 배고프다~ 쿠키만으론 배가 안 차~

훨씬 더 커~다랗고.. 달콤한 뭔가가~ 먹고 싶다~ 딸기 곰보빵 어?! 어쩌면..?!

가봐야겠어! 그때 거기로! 역시 여기 있었구나~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어!

여기에서, 네가 처음 마법을 보여줬었지?

**40대 (우아하고 도도한느낌)**

어머~ 결국 들켜버렸네~? 숙녀한테 니 녀석이라니~ 난 교슈 르 메두,

갱글러 최고의 의사지, 모처럼 즐거운 인체실험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말야~

거깄었구나? (싸우는 호) 보인다… 너의 모든 것이 보여…

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전부… 다른 두 사람은 과연 어떨까~?

(웃는 호) 꼬마야, 다음 번엔 날 더 즐겁게 해주렴.

**9월 오디션 대본**

**남자**

**40대 (우직한 성격)**

보아하니, 겨우겨우 떠 있기만 한 것 같군요. 자~ 그럼.. 이제 둘 다 얌전히..그걸 정할 사람은, 바로 납니다! 아니면.. 계속 저항할 생각인가요? 하지만.. 두 손이 묶여 있으니, 지팡일 쥘 수도 없고.. 당연히 마법도 못 쓰겠군요~아니, 그보다..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, 처음부터 그걸 썼겠네요. (웃음) 세상에 그런 엉터리 마법이 어디 있습니까? 설마 그걸로 내 그리드라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? (웃는 호)

**30대 (뺀 질 거리는 성격)**

정말 좋은 형제군. 아니, 푹 자게 그냥 내버려 둬.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 데려온 거니까 조로랜드, 술이라면 부엌의 마루 밑에 있을 거야. 루피랜드에겐, 아무리 고마워해도 지나치지 않아 우리 백성들이 그를 통해,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 이 나란 달라질 거야 물론 너희들 덕분이지 이번에 너희들이 입은 상처들은 전부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려다 입은 것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답할게.